코로나19 시대에 여름철 —— 야외 근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

코로나19 시대, 감염도 막고, 노동자 건강도 챙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름 폭염 속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 노동자들을 위한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영총괄이사

산업보건분야는 노동자의 건강 증진과 직업병 예방이라는 큰 꿈을 가진 채, 지난 수십 년간 비할 데 없는 위상을 떨치며 여러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보편적 업무로 발전했다. 산업의학, 간호, 산업위생 등 산업보건 발전에 꼭 필요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한곳에 모여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수십 년간 산업보건은 전문가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기념비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 이행을 촉진해왔다. 직업환경의학회, 산업보건학회, 직업건강간호학회 등이 산업보건분야 초창기에 수립된 최고의 모범사례다. 학회들은 수많은 산업보건인을 하나로 묶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규범체제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산업보건은 시대변화에 맞춰 발전해왔다. 노동자 정신건강과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는 산업보건이라는 개념이 처음 정립되었을 때만 해도 예측할 수 없던 도전과제들이었다. 그러나 산업보건은 시대의 새로운 의제들을 포용하고, 촉진시키면서 이러한 의제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과 공동의 노력 중심으로 자리 잡게 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 모든 이들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로 자리 잡은

지금, 사업장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방역업무가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다.

산업보건에서 방역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건강한 일터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며, 어떤 곳에서는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다. 일터에서의 전염병 확산은 국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의 확산, 학교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이기에 짧은 시간 내로 전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방역을 수차례 강조하는 이유다.

지난 3월, 콜센터발 집단감염 사태만 봐도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무 형태, 누구도 안전보건을 책임지지 않은 간접고용 등 구조적 문제가 사태를 키웠다. 집단감염이 불거진 이후 콜센터 지침도 많아졌으나 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건강한 일터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며, 어떤 곳에서는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다.

열악한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산업보건 문제를 야기한다. 다가온 여름 폭염 속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 노동자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만 한다.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체감온도, 호흡수 상승을 유발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야외 근로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온의 노출기준을 토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 노동을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중작업'으로 설정을 요구하여 휴게시간을 늘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가장 빨리, 그리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산업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경청해야 또 다른 범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보건은 1차 방역의 최우선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학계, 정부는 산업보건을 방역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이다.